

## 2023 년 11 월 12 일 “삶의 가치를 충만하게 하는 길”(딤편 4:4-5)

피조물의 가치를 발견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들어갈 때에 상황의 의미를 발견하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 [1] 감사의 대상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주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조국, 시대 등.... 교회나 배우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 열고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발견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사람에게겐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지각과 통찰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은 신앙이 없을지라도 깨닫고 이를 수 있습니다.

### [2]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과 역사에 대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말씀은 지식과 통찰을 얻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배웁니다. 이것이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삶의 의미는 허락하신 것이 나와 공동체에 필요했음을 알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발견된 가치들이 조화를 이루고 통합되어 궁극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에덴의 회복과 완성을 향하여 가게 하십니다. 에덴의 완성은 화목과 살롬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5 절을 풀어본다면,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가치가 발견되고 확정되어서 특별한 의미 있는 필요한 존재로 구별됩니다’

### [3] 하나님의 가치 부여

사람이 장성하면 맘에 들고 안 들고 문제를 떠나 어떤 것이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석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넘어 나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필요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나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B.C.7 세기경, 선지자 하박국은 민족의 타락에 대해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이에 이웃 나라 바빌론을 들어 징계하시겠다고 하자 충격을 받고 너무 심하시다고 탄원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내적 씨름을 했는데,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합 1,2 장).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백성이 더욱 새롭고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에 찬양을 드립니다(3 장). 이 경우, 바빌론이 선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쓰신 도구로서 구별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이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해 허락하신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반전하는 찬양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고 깊은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가치가 드러납니다.

#### <맺음>

내가 힘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많지만, 말씀과 기도는 내면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의미를 깨닫고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믿음의 안목을 열어 성숙한 자녀의 수준으로 올리시는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5 절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보세요.
2.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선하지 않을지라도(예: 바빌론) 하나님의 선용하시는 지혜를 볼 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